

# 은행 예금금리 최고 5%대라는데... 실질금리 2%에도 못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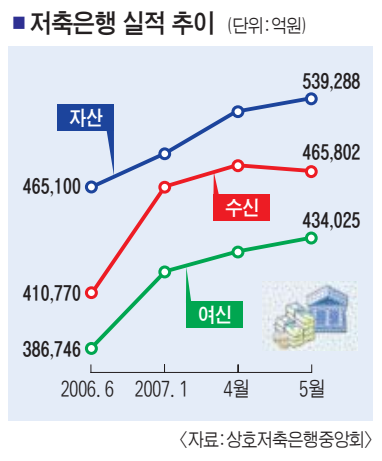
## 물가 상승률·이자소득세율 반영하면 1.81% 불과

올 들어 은행들이 고금리 예금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실질금리는 여전히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이자소득세율을 뺀 것으로, 명목금리가 높아지더라도 물가상승률과 세율이 함께 높아진다면 실질금리는 제자리수준에 머물게 된다. 17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월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 기준 중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86%로 2001년 9월 연 4.9% 이후 5년 8개월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세율 15.4%) 0.75%(4.86×0.154)와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2.3%를 뺀 경우 실질이자율은 연 1.81%로 2%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 예전대 지난 5월 1천만원을 은행의 예금에 넣어뒀다면 실질적으로 받는 이자는 연간 18만1천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실질금리는 2003~2005년 예금 평균금리가 3~4%대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4.8%에 이르렀을 때는 마이너스(-)나 혹은 0%대에 머물렀다. 2006년 들어서는 예금 평균금리

가 4%대를 유지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5%를 밑돌면서 실질금리도 1%대로 올라섰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예금 평균금리가 4.69%까지 올라간 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7%에 그쳐 실질금리는 2.27%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이자가 없는 한 가입을 권하지 않고 수차례다. 그러나 2~3월 1.85%, 4월 1.59%로 다시 1%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고금리를 내세우며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특관 정기예금의 경우 명목금리가 5~6%대로, 이자소득세 0.77~0.92%,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5%를 빼면 실질금리는 1.73~2.58%에 불과하다. 한 시중은행 재테크 팀장은 "예금상품의 경우 은행마다 금리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데 최근 펀드 수익률 등과 비교했을 때 절대 금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고객들이 굳이 찾지 않는 한 가입을 권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원하거나 6개월에서 1년 정도 단기간 굴릴 경우에는 펀드 대신 확정금리형 예금상품에 넣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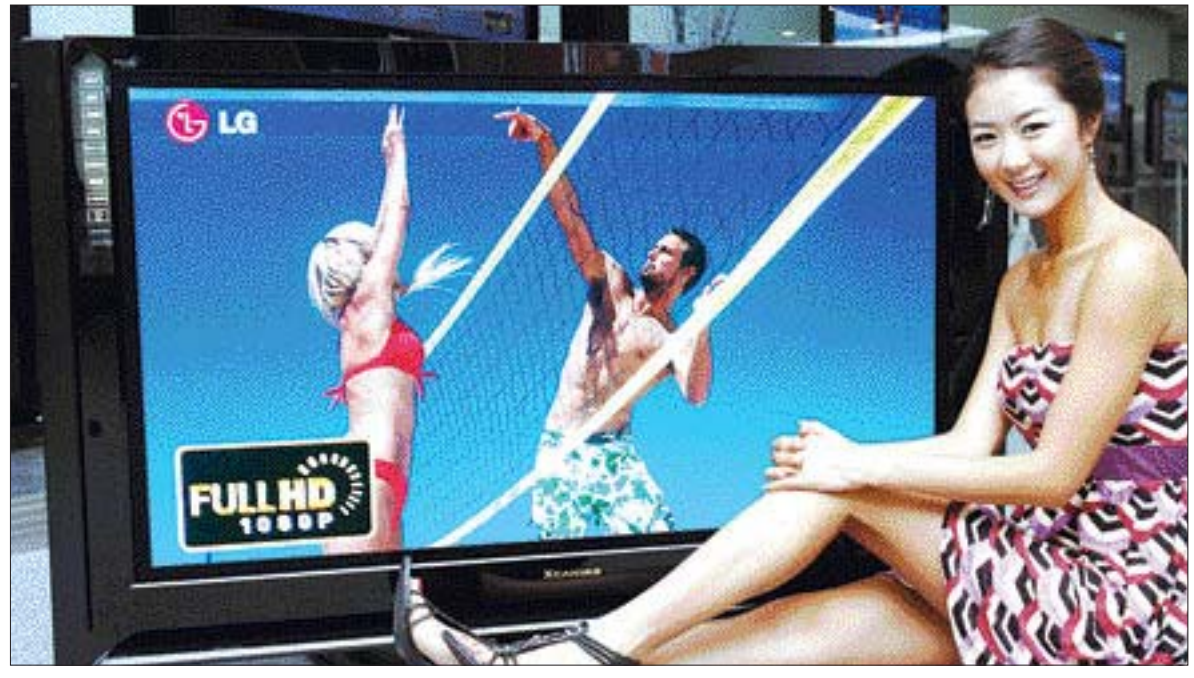
## 저축은행 수신 8년만에 감소

4월보다 885억 줄어

상호저축은행들의 수신이 8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것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저금리 기조에서 저축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확정금리를 내세워 끌어들이던 자금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징후로 간주된다. 17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 협회에 따르면 5월말 기준 110여개 저축은행의 수신은 46조5천802억원으로 4월말에 비해 885억원 감소했다. 저축은행의 월별 수신은 감소한 것은 1999년 4월 이후 8년1개월만에 처음이다. 저금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확정금리 상품을 찾기 위해 저축은행을 찾았던 금융 소비자들이 이제는 저축은행에 자금을 재입금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축은행들의 월평균 수신 증가액은 6천억원대였지만 올 들어 5월까지 4천억원대로 2천억원 가량 감소했다. 수신액은 지난해 12월 1조2천억원 늘어난 이후 1월 6천억원, 2월 8천200억원, 3월 3천600억원 4월 3천700억원으로 증가규모가 계속 줄어들다가 5월 들어 마침내 감소세로 돌아섰다. /연합뉴스

## 정조대왕형 CEO 최고 직장인 5명중 1명 꼽아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는 마셜출판사와 함께 직장인 1천378명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CEO)로 가장 모시고 싶은 역사적 인물 유형을 설문한 결과 22.4%가 합리적 의사소통을 지닌 '정조대왕형'이라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다음으로 새로운 세계와 이상향을 실현해가는 '광개토대왕형'(19.7%), 인재 문화경영의 표본인 '세종대왕형'(15.5%), 통합과 상생의 지도자 '주몽형'(13.5%), 의리와 충절을 지킨 '이순신 장군형'(12.4%) 등의 순이었다. 한편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으로 직장인 40.1%가 '업무 전문성'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초고화질 50인치 PDP TV 보세요 LG전자가 17일 새로 출시한 50인치 풀 HD PDP TV 신제품을 한 모델이 선보이고 있다. 50인치 풀 HD PDP TV(모델명: 50PY3DR)는 약 207만화소의 초고화질로 기존 HD급 대비 200% 선명하다. /연합뉴스

# 몽치돈 증시로 급속 쏙림

## 은행·부동산에 잠겨있던 역대 자금 주식·펀드로 1억원 이상 거래 주문 하루평균 1만4,000건 넘어

코스피지수가 '몽의 지수'인 2,000시대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날부터 시작된 주식시장으로의 몽치돈 유입 랠리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은행이나 부동산 등에 잠겨있던 역대 자금들이 직접투자나 펀드 등 간접투자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6월부터 1억원 이상 주문 하루 평균 1만4천건 넘어, 1월의 3배=17일 증권선물거래소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13일까지 한번 주식매수에 1억원 이상 거래를 투자하는 주문 건수가 하루 평균 1만4천615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월의 4천390건에 비해 3.3배로 늘어난 것이다. 1억원 이상 주문건수는 2.3월에도 각각 하루평균 5천124건과 5천241건으로 저조했으나 4월부터 늘기 시작해 4월과 5월 각각 7천958건과 1만754건으로 늘어 연초의 배 수준으로 늘었다. 특히 6월에는 하루 평균 1만5천395건으로 대폭 늘어 주식시장으로 몽치돈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됐고 이런 현상은 이달에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전체 주문건수에서 개인 비중도 대폭 높아졌다. 이달 들어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주)에스티에스큐니케이션	[광주]삼성생명물신대 상담직(인바운드)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8	062-600-0804
(주)동진미디어	카메라촬영보조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9	062-224-5401
(주)한진기공	설계직/NC기사	고졸/경력무관	2000~2200	07/20	062-953-1642
(주)목원	정규직 남품영업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0	062-224-3478
엔하이테크(주)	연구개발, 기술개발, 설계 등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0	032-851-0360
지비씨 주식회사	정규직 사무관리 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500~1700	07/21	062-350-8170
명기인테리어	인테리어, 광고디자인 설계	초대졸/경력2년	1800~2000	07/21	062-675-1068
(주)남양모터스	(주)남양모터스 렉서스 신입/경력 영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1	062-384-7713
동화금융	CAD 초중 설계(시공, 품질관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2	062-942-2266
(주)화인코리아	(주)화인코리아 2007년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3	061-330-4510
한국인포데이터(주) 전남본부	광주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4	062-360-0503
디엠광고기획	거래처관리사원 및 영업(상기책자광고영업)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0	062-268-2409
엘지전자 (주)호남센터	LG전자 서비스센터 취업 교육생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0	062-510-6190
코오롱건설	공동주택 건축사원/인전관리직 경력사원	초대졸/경력3년	2800~3000	07/31	062-951-1493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 전군표 국세청장 취임 1돌

# “稅政은 국민공감 서비스”

### 연말정산 간소화·홈택스 업그레이드 평가



전군표 국세청장이 18일 취임한 지 1주년을 맞는다. 전 국세청장은 지난해 여름 취임 이후 '세정은 서비스'라며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이라는 표어하에 국세청이 세금을 걷기만 하던 짐수기관에서 편안한 납세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 연말정산철차를 간소화하고 홈택스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정은 서비스'라는 캐치 프레이즈로 국세청이 세금을 걷기만 하는 기관으로 인식되는 것을 탈피했다. 실제로 그는 국민들의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여럿 도입했다. 우선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도입해 연말정산 절차를 편하게 했다. 또 과세 불복청구를 한 사람이 불복청구 심리자료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기결정신청제도도 도입했다. 세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책을 발간해 세금 바로 알기 운동도 전개했고,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 생활세금 자동계산 등이 가능하도록 홈택스 서비스도 보완했다. 아울러 14만건의 세금정보를 담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무료 서비스도 시작했다. 전 청장은 지난해 9월 서울에서 미국, 일본, 영국 등 35개국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5개 국제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3차 OECD 국제청장회의를 치러 국제행정의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해 과세당국 간 공조를 강화하는 서울선언을 만장일치로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렸기도 했다. 전청장은 지난해 11월 뉴질랜드에서 열린 36차 아시아지역 국제청장회의에서 13개 참가국 대표로

페막연설을 하기도 했고, 올해 1월에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10개국 국세청장 협의체인 리즈캐슬그룹 창설그룹 창설멤버로 참여했다. 전 청장은 올해 연말 대선을 앞두고 불법정치자금 문제가 재발 가능성에 대비, 기업의 비자금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글로벌화의 진전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제거래의 급증에 대비해 외국 세정 당국과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외 투자 관련 정보 수집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EU FTA 핵심은 '자동차'

### EU측 "관세철폐기간 7년 실망스럽다" 불만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양측의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체 협상의 큰 틀과 밑그림을 그린 1차 협상은 우호적인 분위기였지만 2차 협상에서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첫 날부터 양측의 공방이 펼쳐졌다. EU는 한국의 상품양허안에 상당한 불만감을 표출했고 금융과 투자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한수 수석대표는 "EU 측이 심각한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EU 측이 우리 측 상품양허안 전

반에 대해 불만을 보였지만 핵심은 양국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다. 양측은 자동차의 관세 철폐기간을 똑같이 7년으로 제시했다. 7년은 양측이 제시한 상품양허안 중 비교적 긴 관세 철폐 기간이다. EU 입장에서는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두렵고 우리도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유럽 차에 대한 관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없앨 수는 없다. 우리 측 입장은 난감하다. 연간 서로 간의 자동차 수출입 물량만 우리 측 74만대, EU 1만5천대 등을 감안하면 자동차에 대해 우리 측이 한발 물러설 수도 있지만 자동

차 관련 부처와 협상 부처 등 정부 내 입장이 달라 조정이 쉽지 않다. 국내 의견 조율의 어려움 때문에 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을 7년으로 고수하면 EU가 반발, 전체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공세적 입장에서 EU 측에 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 단축을 요구해 EU가 이를 수용할 경우 상품 분야에서 EU의 양허 시기는 대부분이 5년 이내가 된다. EU는 스스로 7년 내에 모든 상품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했지만 한국 측은 상당한 품목들이 7년을 넘고 농수산물 등 250개 품목의 경우 명확한 관세 철폐 일정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생수 매출, 탄산음료 제쳤다

### 매년 급성장...음료 시장에서 과일음료이 2위

음료시장에서 생수의 매출이 매년 급성장하면서 올 상반기 처음으로 탄산음료 매출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신세계 이마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06개 점포(신세계마트 16곳 포함)의 음료 매출을 분석한 결과, 생수 매출이 모두 110억원으로, 탄산음료 103억원보다 많았다. 지난해 전체 이마트에서의 생수 매출은 208억원으로, 탄산음료 230억원

보다 적었다. 2005년의 경우에는 당시 79개 이마트에서의 생수 매출이 158억원, 탄산음료는 203억원으로, 작년보다 격차가 더 컸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이마트의 생수 매출은 작년 동기대비 21% 늘어난 데 비해 탄산음료 매출은 1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이마트에서의 생수 매출은 260억원이 넘어 팔린 과

일음료에 이어 음료부문 2위로 뛰어올랐다. 과일음료와 생수, 탄산음료 다음으로는 냉장과음이 90억원대의 매출로 4위를 차지했으며, 티음료도 작년 동기대비 80% 많은 44억원으로 5위에 올랐다. 이처럼 생수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물을 끓여먹는 대신 생수를 마시는 가정이 크게 늘어난 데다 각종 첨가물이 들어간 음료보다 순수한 물 자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이마트는 분석했다. /연합뉴스

## 아시아나 150명·대한항공 100명

# 하반기 여승무원 대규모 공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하반기 여승무원 대규모 공채를 실시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최근 국내선 및 국제선 여승무원 선발공고를 내고 각각 150여명과 100여명 등 총 250여명을 뽑는 절차에 돌입했다. 대한항공의 올해 여승무원 채용계획은 총 500여명으로 이미 상반기에

400여명을 뽑았고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예정한 380여명 가운데 상반기에만 230여명을 충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3년만에 처음으로 국내선 여승무원을 뽑는다. 2004년 8월 이후 국내선 여승무원을 별도로 선발하지 않았던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를 대상으로 국내선 여승무원 원서를 접수받는다. 어학

성적 우수자를 우대하며 전공은 제한이 없으며 최종 합격자는 인턴사원으로 1년간 근무 뒤 정규직으로 바뀐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19일부터 국제선 여승무원 선발공고도 내고 인력 충원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오는 30일까지 국내선 및 국제선 신입 여승무원을 모집하는데 자격은 전문대 졸업 이상 또는 내년 3월 이전 졸업자로 전공 제한은 없으며 토익 550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처럼 국내 대표 항공사들이 여승무원 확충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최근 해외여행 급증으로 노선이 늘어난 데다 여객기 추가 도입으로 인력수급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